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본 RIBA 수상작 건축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IBA Stirling Prize-Winning Archite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ustainability

주 저 자 : 이수옥 (Lee, Su Ok)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박사과정

공 동 저 자 : 장석모 (Jang, Seok Mo)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언론학전공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오윤숙 (Oh, Yun Sook) (주)골든윈즈스페이스 대표이사 디자인학 박사
goldwinz@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6.1.459>

접수일 2026. 02. 19. / 심사완료일 2026. 03. 13. / 게재확정일 2026. 03. 16. / 게재일 2026. 03.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sustainability is realized i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contemporary public architecture through RIBA Stirling Prize-winning works. Using Paul Ricoeur's theory of triple mimesis, it interprets how experience, narrative, and practice are transformed into social coexistence, cultural continuity, and institutional equity in architectural space. The findings show that social sustainability emerges through relational organization, temporal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mediation rather than through isolated design element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rames social sustainability as an analytical concept for architectural space and argues that publicness and equity are realized through spatial organization.

Keyword

Social Sustainability(사회적 지속가능성), Public Architecture(공공건축), RIBA Stirling Prize(RIBA 수상작)

요약

본 연구는 RIBA Stirling Prize 수상작을 대상으로 현대 공공건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공간 조직 속에서 구현되는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삼중 미메시스 이론을 적용하여 경험, 서사, 실천의 구조가 건축 공간에서 사회적 공존, 문화적 연속, 정의적 형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의 공존은 관계 조직 구조로, 층위의 연속은 시간 구조로, 제도의 형평은 제도 매개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개별 설계 요소가 아니라 관계 조직, 시간적 경험, 제도적 접근이 결합된 공간 조직 전략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삼중 미메시스와 연결하여 건축 공간의 분석 틀로 체계화하고, 공공성과 형평이 공간 조직 방식 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건축
- 2-2. RIBA 수상작의 고찰

3.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 분석 관점

- 3-1. 통합의 공존
- 3-2. 층위의 연속

3-3. 제도의 형평

3-4. 소결

4. 사례 연구

- 4-1. 사례 범위 및 방법
- 4-2. 사례분석
- 4-3.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건축 담론에서 지속가능성은 주로 환경적 성능과 기술적 효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에너지 절감과 자원 순환 등 물리적 조건의 체계화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건축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공공적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역할은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였다. 근대를 거치며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었음에도 상당수 논의가 미학적 완성도나 시각적 질서에 집중되었고, 건축과 사회의 구조적 상호작용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¹⁾

최근 도시 불평등의 심화와 공동체의 약화, 공공 공간 기능의 축소는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드러낸다. 물리적 지속만으로는 도시의 장기적 안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축을 사회적 가치가 형성·유지되는 공간적 조건으로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공동체의 지속과 사회적 형평, 참여와 포용, 공공성의 유지가 시간 속에서 재생산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목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규범적 선언에 그치지 않으며, 공간의 구성 방식과 이용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공간의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조직, 이용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축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매개하고 조직하는 과정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영국의 건축 문화와 공공 담론을 반영해 온 RIBA 수상작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공간적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리콤프의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전구성된 맥락 위에서 관계가 형상화되고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서사적 과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을 사회적 의미가 시간 속에서 갱신되는 해석학적 장치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사례 해석을 병행하는 질

1) 이선미, 수요자 중심의 사회참여형 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임대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13

적 연구 기반으로 분석 대상은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가 주관하는 Stirling Prize 수상작이며, 수상작은 동시대 영국 현대 건축의 가치와 담론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 사례군으로 간주된다. 연구 범위는 2001년 이후 수상작 가운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 성격이 명확한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선행 연구와 건축 전문 매체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논의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기존 분석 틀을 정리한 뒤, RIBA 건축상의 제도적 배경과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건축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리콤프의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을 보완 틀로 도입해 전구성-형상화-재구성의 순환 구조 속에서 사례를 재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 구조, 문화의 다층적 연속, 정의적 형평의 공간적 구현을 분석함으로써 건축 공간의 구성과 운영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맺는 연계 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건축

2-1-1.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와 제도,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와 재생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지속가능성이 환경 보전이나 경제적 효율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공동체의 지속, 사회적 형평, 참여와 포용, 공공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²⁾ 물리적 인프라와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신뢰, 문화적 연대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가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가 형성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속가능성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1987)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과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전제로 정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환경 보호의 문제를 넘어 인간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 체계로 확장하였다. 이후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환경 문제는 인간 삶의 조건과 연결되었고, 20세기 후반 도시 불

2) Colantonio, A., Social Sustainability: Linking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p.9.

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차원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추상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삶이 전개되는 공간적·제도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덤프시(Dempsey) 등은 사회적 포용성과 주거 안정성을 통해 공동체 네트워크, 시민 참여, 공공 안전,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지표가 도시와 건축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³⁾ 또한 UN-Habitat과 세계보건기구는 포용성과 참여,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신뢰와 같은 정서적 요소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임을 분명히 하였다.⁴⁾

이러한 논의는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미메시스 이론과도 연결된다. 리코르는 인간의 삶이 경험, 서사,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해석되고 재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을 축적하고, 그러한 경험은 사회적 의미로 조직되어 서사를 형성하며, 시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과 같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⁵⁾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시간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과 관계가 재구성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건축은 그러한 서사가 실현되는 물리적 기반으로 위치한다.

2-1-2.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과 미메시스 구조

[표 1]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현대 건축은 다원적 사회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존(Coexistence)의 철학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가능성 담론은 환경 성능, 에너지 효율, 저탄소 설계, 재료 순환과 같은 기술 중심의 친환경 전략에 집중되어 기능성과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근대적 건축 사고와 긴밀한 연결로 자원 절약과 환경 부

3) Dempsey, N., Bramley, G., Power, S., Brown, C.,b The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ng Urban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Vol.19(5), 2011, pp.289-291.

4) Colantonio, A., Social Sustainability: Linking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5) 오윤숙, RIBA 수상작에 나타난 영국 현대축의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P.23

하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늘날 도시가 직면한 커뮤니티 붕괴, 사회적 양극화,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가시적인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복합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축은 기술적 대응을 넘어 사회적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고려하는 실천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공간은 사회 활동이 실천되는 실재적 조건으로 공간적 관계는 사회 형성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모든 건축은 본질적으로 사회적·공공적 기능 수행과 사적·공적 공간의 설계를 통해 도시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이 공공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⁶⁾

[표 1]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건축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요소
김리영 외 (2010)	압축도시 특성 요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	집중성, 형평성, 포괄성, 상관성
공영인 외 (2022)	전이 공간을 활용한 사회참여건축 특성 연구	연속성, 통합성, 문화성, 진화성
윤성인 (2023)	ESG 관점으로 본 사회참여건축의 공간 특성 연구	순환성, 복원성, 경제성, 형평성
신윤성 외 (202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SG 디자인 전략 비교 연구	환경성, 정의성, 복합성, 심미성
이병호 (2024)	사회참여건축에서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공간 특성 연구	생태성, 물리성, 참여성, 공정성
이수옥 (2024)	리질리언스 관점으로 본 산업유산의 문화공간 특성 연구	심리성, 사회적 제도성, 장소성
김재영 외 (2025)	재생 건축에서의 전이공간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축적성, 시간성, 역사성, 지각성

이와 같은 인식은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시간과 이야기(Time and Narrative)』에서 제시한 삼중의 미메시스 구조로 설명된다. 그는 인간의 삶을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닌 서사 속에서 의미화되고 다시 현실의 삶을 재구성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은 미메시스 I의 전형상화(pre-figuration), 미메시스 II의 형상화(configuration), 미메시스 III의 재형상화(re-figuration) 단계로 전개된다. 미메시스 I은 세계와 행동에 대한 전이해의 차원이며, 미메시스 II는 경험이 서사적 구조로 조직되는 단계이고, 미메시스 III는 서사가 다시 삶의 세계와 접속하여 인식과

6) 민경훈 & 윤재은, 사회적 건축의 로컬리티 공간 현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15(8), 2000, p.102.

실천을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구조는 경험, 서사, 실천이 상호 매개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⁷⁾

이 개념은 문학적 서사를 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해석하는 틀로 확장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공동체 경험의 공유와 사회적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삼중의 미메시스는 그 형성과 재생산의 논리를 설명하는 기반이 된다. 이때 사회적 형평성은 공동체 내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상호 돌봄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공존의 조건이 된다. 접근의 평등은 공간과 자원, 문화적 환경의 균등한 향유를 보장하여 공동체의 기억과 생활양식을 지속시키는 문화적 연속의 기반이 된다. 참여의 권리는 구성원이 공간과 공동체 질서 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의적 형평의 실천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제도적 목표나 정책적 지표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공존, 문화적 연속, 정의적 형평이 공간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며, 건축은 이러한 과정을 조직하고 매개하는 실천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공동체의 경험과 참여를 담아내는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이자, 공간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그림 1] 삼중 미메시스의 순환 구조

첫째, 미메시스 I의 행동적 경험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용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상호작용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 중심의 배타적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간극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하는 사회적 공존을

7) 김수련, 폴 리콥르의 미메시스 이론으로 본 영화적 재현방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8), 2012, p.148.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그 의미를 지닌다.⁸⁾

둘째, 미메시스 II의 경험적 서사에서는 장소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특정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현대적 기능과 통합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접근이다. 장소성은 단순한 물리적 맥락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감각이 축적되는 층위로 이해되며, 팔라스마가 강조한 감각적 경험과 기억의 축적은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되는 다층적 문화로 형성되며, 시간의 축적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기능한다.⁹⁾

셋째, 미메시스 III의 인식과 실천에서는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한 유형이다. 설계 행위가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 윤리에 기반하며, 공간에서의 정의적 형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전제로 한다. 건축가를 기술적 문제 해결자가 아닌 사회적·문화적 실천자로 인식하는 태도와 연결된다.¹⁰⁾ 이러한 윤리적 인식은 공공건축이 이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층적 경험을 담아내는 통합적 매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가 조화롭게 결합되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그 의미를 둔다.

[그림 1]은 삼중 미메시스의 순환 구조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건축적 실천은 세 가지 유형으로 [표 2]는 삼중 미메시스의 건축적 실천 유형 특징을 구조화한다.

[표 2] 삼중 미메시스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적 실천

구분	내용	특징
미메시스 I →경험	계층·세대·문화가 공존하는 구조 → 관계 공존 중심 유형	사회적 공존
미메시스 II →서사	기억의 축적과 정체성 유지 → 시간 연속성 중심 유형	문화적 연속
미메시스 III →실천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제도와 책임 중심 유형	정의적 형평

8) 이선미, ibid., p.14.

9) Pallasmaa, J.,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2005, pp.36-42.

10) 양정민, 사회참여 건축에 나타난 공공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22.

2-2. RIBA 수상작의 고찰

2-2-1. RIBA 수상작 선정 이해 및 패러다임

RIBA Stirling Prize는 RIBA Awards 수상작¹¹⁾ 중 최우수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영국 최고 권위의 건축 상이며, 영국 현대건축의 지향과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 상은 단순히 한 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문화와 환경적 과제를 건축적 성취 안에 통합함으로써 건축이 수행해야 할 공공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선정 배경에 대한 고찰은 수상작을 개별 디자인 성과로 환원하기보다 동시대 사회 문제에 대한 건축적 응답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전제를 형성한다.

[표 3] 심사 단계 과정 (Oh, 2025, 재인용)

단계	내용	의미
지역 어워드	영국 12개 지역 심사 지역, 맥락 사회적 기여 평가	지역 정체성 및 사회적 영향력 검증
국가 어워드	지역 수상작 대상, 전국 단위 심사, 국가적 파급력, 문화 기술 환경적 성취	영국 건축 대표성 확보
최종 후보 선정	국가 수상작 중 6개 내외 선정 디자인 혁신, 기술, 환경 대응, 사회적 가치 종합 검토	당해 연도 영국 건축 방향성 제시
현장 방문	심사위원단 직접 방문 공간 경험·운영 검증, 이용자 반응, 관리 효율성	설계 의도와 실제 구현 일치 여부 검증
최종 심사 발표	위원단의 함의로 최종 심사 후 1개 작품 선정	영국 건축 담론 형성 및 상징적 선언
보완 장치	사용자 인터뷰, 운영 지속성 공공성 검증	상의 공정성, 사회적 책임성 확보

[표 3]의 심사 단계와 과정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매년 새롭게 구성되며, 건축 실무자뿐 아니라 비평가, 학자, 언론인, 예술·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인물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는 배제되고 위원장이 심사를 총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다원적 구성은 조형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환경적 책임, 지역적 파급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기후 위기, 사회적 포용성, 형평성 등 시대적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또한 변화해 왔다는 점

11)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Stirling Prize Winners 2000–2024, London: RIBA Archive, 2024.

은, 이 상이 고정된 미학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제도임을 보여준다.

심사 과정은 단순한 우수작 선정 절차를 넘어, 건축이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구조로 작동한다. 지역에서 국가, 최종 후보 선정과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발표에 이르는 다층적 과정은 수상작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며, 영국 현대 건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담론적 장을 형성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RIBA Stirling Prize의 선정 흐름은 [표 4]에 나타난 시대적 맥락¹²⁾과 연동되어 변화해 왔다.

먼저 통합적 매개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재생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공공 프로그램과 지역 정체성의 강화 속에서 건축이 공동생활을 회복하는 장으로 인식되어 공간이 공존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에 주목한 시기이다.

다음으로 다층적 문화 측면에서 2020년대에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연결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며, 건축은 재난 대응과 공동체 회복을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으로 이는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문화적 연속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2010년대에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이 중심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설계와 포용적 공간 전략이 평가 기준 반영으로 건축은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재구성되며,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승인이라는 성격이 강화된다.

[표 4] RIBA Stirling Prize 시대적 맥락 선행연구 재구성

시기	내용	요소	특징
2000년대 초반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회복	공존의 공간 구조 형성	공존→ 통합적 매개
2010년대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	형평과 책임의 제도적 강화	연속→ 다층적 문화
2020년대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연결성	연속성과 회복의 구조 확장	형평→ 제도적 기반
평가 체계의 성격	사회 문화적 의제 반영	공존, 연속, 형평의 가치의 재구성	

이러한 흐름은 RIBA 수상작의 평가 체계가 단순한 건축 디자인의 우수성만을 기리는 상이 아니라,

12) 오윤숙, *ibid.*, p.65.

사회문화적 의제를 수용하며 통합적 매개, 다층적 문화, 제도적 기반 재구성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2-2-2. RIBA 수상작 건축의 방법적 구조 및 연계

RIBA Stirling Prize의 방법적 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¹³⁾를 통해 건축을 단순한 미학적 성취가 아니라 공공성·환경성·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프레임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평가 체계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의 공존, 층위의 연속, 제도의 형평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통합의 공존은 건축이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주체를 포괄하는 관계적 장으로 조직되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통합성, 복합성, 포괄성은 공간이 배타적 분리가 아니라 상호 연결의 질서를 형성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건축을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게 한다. 디자인 완성도와 혁신성, 심미성의 균형 역시 건축이 동시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간적 응답을 제시하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리코르의 미메시스 I과 관계하며,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기능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 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층위의 연속은 건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기준이다. 역사성, 연속성, 축적성은 공간이 과거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중첩하며 지속적인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용자 경험, 접근성, 지속가능성, 유니버설 디자인, 감각적 경험의 연속성, 에너지 성능 등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리코르의 미메시스 II와 연결하며, 건축이 장소의 기억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시간의 층위를 형성하고 문화적 의미를 축적하는 환경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셋째, 제도의 형평은 건축의 사회적 효과가 제도적 검증과 평가 체계를 통해 확인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은 공간이 공공성, 접근성,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사회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용 통계, 유지관리 데이터, POE 결과 등은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되며, 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평가 기준의 조정은 맥락에 따른 공공성과 책임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은 리코르의 미메시스 III와 전환되며, 건축이 사회적 효과를 실천의

차원에서 구현하고 검증하는 제도적 구조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5]는 RIBA 수상작 건축의 평가 구조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구현되는 실천의 장으로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다. 여기서 공존은 통합의 공존, 연속은 층위의 연속, 형평은 제도의 형평으로 재구성된다. [표 6]은 이러한 구조의 공간 특성과 건축 요소를 통해, 공간이 사회적 요구와 관계를 맺으며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표 5] RIBA 수상작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 특성

구분	기능	요소
통합의 공존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관계 조직 구조	통합성 복합성 포괄성
층위의 연속	기억과 문화가 단절 없이 중첩, 축적되며 지속되는 시간적 연속구조	역사성 연속성 축적성
제도의 형평	공간이 사회적 효과를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검증, 승인하는 제도적 구조	공정성 객관성 책임성

[표 6] RIBA 수상작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 요소

구분	내용
통합성	다양한 기능과 주체를 조직해 상호 연계를 형성
복합성	이질적 프로그램과 집단이 중첩되어 다층 관계
포괄성	폭넓은 사용자와 활동을 수용하는 개방성
역사성	과거 맥락과 문화 기억을 반영하는 시간성
연속성	사회, 문화 흐름을 지속하는 구조
축적성	시간의 경과 속에서 경험과 의미가 중첩되는 누적
공정성	평가와 구현 과정에서 형평과 균형을 확보하는 기준
객관성	증거와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는 성격
책임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지는 태도

이러한 평가 체계는 RIBA 수상작 건축의 다층적 심사 과정과 연계된다. 지역 단계에서 장소 맥락과 공동체 기여를 확인하고, 국가 단계에서 이를 문화적 대표성의 범주로 확장한다. 이어 최종 후보 선정과 현장 검증을 통해 설계 개념과 실제 공간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최종 발표를 통해 해당 연도의 건축적 기준을 공적으로 확정한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 건축 분석 관점

13) 오윤숙, *ibid.*, pp.64-71.

3-1. 통합의 공존



[그림 2] 매그나 과학 어드벤처 센터

매그나 과학 어드벤처 센터(Magna Science Adventure Centre)는 템플버러 제강소를 활용한 체험형 과학관으로, 100여 개의 인터랙티브 전시를 수용한 산업유산 재생으로 기존 산업 구조를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간 조직의 기반으로 전환하여 과거 생산 인프라와 현재의 교육·문화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였다. 보존된 트러스는 전시 파빌리온과 데크를 지지하는 구조 프레임으로 재구성되며, 산업 생산의 논리는 전시와 체험 동선을 조직하는 질서로 재맥락화된다. Air-Earth-Fire-Water의 네 파빌리온은 서로 다른 주제와 환경 조건을 지니면서 동일 구조 안에 중첩 배치되고, 'Big Melt Show'는 제철 공정을 교육 콘텐츠로 재현한다. 교육 활동과 지역 방문객 참여가 단일 흐름 속에서 교차하는 다층적 플랫폼이 형성된다. 환경 전략은 기존 구조를 재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공적 조건을 마련한다. 산업유산의 물리적 스케일은 위계적 잔존물이 아니라 개방적 수용 구조로 전환된다.

[표 7]의 관계적 조직성, 다층적 중첩성, 개방적 수용성의 틀에 따르면, 매그나 센터는 구조 보존과 프로그램 삽입을 통해 기능과 주체의 관계를 재조직한 통합의 공존은 공간으로 해석된다. 산업유산이 사회적 활동과 교육적 기능을 수용하는 관계적 플랫폼으로 재구성된 공간임을 입증한다.

[표 7] 통합의 공존

내용	분석 키워드
철골 트러스를 기반으로 전시, 교육 기능을 구조적으로 연결	관계적 조직성
파빌리온과 지역 참여 활동이 동일 구조 안에서 교차	다층적 중첩성
ETFE 전략으로 다양한 이용자를 수용하는 공공 공간 형성	개방적 수용성

3-2. 층위의 연속



[그림 3] 애슬리 성

애슬리 성(Astley Castle)은 13세기부터 이어진 성터를 현대 주거 숙소로 전환한 영국 국가유산 사례로, 폐허 벽체 사이에 현대 구조를 삽입하여 시간의 다층성을 형성한다. 성곽 외곽 벽과 균열은 단순한 잔해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장소 기억을 담은 물리적 기록으로 기능하며, 프로젝트는 이를 공간 구성의 전제로 삼는다. 기존 성곽 벽체는 과거의 구조적 층위를 유지하는 경계로 작동하고, 삽입된 현대 건축은 거주 기능을 위한 현재의 층위를 형성한다. 여기에 숙박·체험 프로그램이 사용의 층위로 더해지면서 과거·현재·사용이 병치된 레이어 구조가 구축된다. 사용자는 이동 과정에서 벽체의 두께 변화, 재료 전환, 개구부를 통한 빛의 유입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며 시간의 층위를 인지하게 된다. 마모된 석재와 균열은 역사적 흔적을 드러내고, 현대적 재료는 현재의 개입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현대적 장치는 유산 보존의 요구와 현재의 사회적 기준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레이어로 기능한다.

[표 8]의 맥락적 연속성, 위계적 중층성, 기억적 축적성의 틀에 따르면, 애슬리 성은 유적의 흔적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대적 구조를 분리·삽입함으로써 과거·현재·사용의 층위를 하나의 환경 안에서 경험하도록 조직한다. 이는 시간의 단절이 아니라 중첩과 지속을 전제로 하는 층위의 연속이 공간 구성의 원리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표 8] 층위의 연속

내용	분석 키워드
성곽의 잔존 벽체와 균열을 존치하여 과거의 맥락을 현재처럼 환경 속에 지속	맥락적 연속성
성곽구조(과거), 삽입 건축(현재), 숙박 프로그램(사용)이 동일 공간 안에서 병치·중첩	위계적 중층성
석재의 마모, 균열, 자연광 유입을 통해 시간의 누적이 감각적으로 드러남	기억적 축적성

3-3. 제도의 형평



[그림 4] 리버풀 에브리맨 극장

리버풀 에브리맨 극장(Liverpool Everyman Theatre)은 기존 극장의 상징성과 공동체 운영 철학을 유지한 채 현대 공연시설로 재건되었다. 공간은 공연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매개 구조로 가능하다. 공연 여부와 무관하게 개방되는 1층 로비와 커뮤니티 공간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형성하며, 거리와 시각적으로 연속된 구성은 도시와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공간 이용 조건의 균형을 담보하는 형평적 공정성의 구현이다.

워크숍룸과 교육 공간, 다목적 스튜디오는 다양한 연영과 배경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고, 좌석 규모와 동선 체계는 이동과 참여 조건을 균등하게 구성한다. 운영 철학과 공간 배치의 결합은 참여 원리를 구조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획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운지는 지역 모임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외피의 시민 초상 패널은 극장의 정체성을 도시와 연결해 장소 기억을 가시화한다. 극장이 수행하는 공적 책무를 드러내는 사회적 책임성의 표현이다.

[표 9]의 분석 틀에 따르면, 에브리맨 극장은 균형적 공정성, 근거적 객관성, 관계적 책임성을 통해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매개 구조로 조직하며, 제도의 형평이 건축적 구성과 운영 전략 속에서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9] 제도의 형평

내용	분석 키워드
개방된 로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균형과 접근성 확보	균형적 공정성
다양한 집단을 수용하는 공간 배치와 형평적 동선 구성	근거적 객관성
지역 활동 지원 공간과 시민 초상 외피로 공적 역할 가시화	관계적 책임성

3-4. 소결

RIBA 수상작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특성은 통합의 공존, 층위의 연속, 제도의 형평으로 구분되며, 각각 관계, 시간, 제도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공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상이한 작동 원리로 설명하는 틀이다. [표 10]은 이러한 구조화 방식에 따른 특성을 도출 과정이며, [그림 5]는 세 축의 상호 관계를 시각화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조 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5] RIBA 수상작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특성 도출 과정

[표 10] 통합의 공존, 층위의 연속, 매개의 형평 특성 비교

구분	내용	구조
통합의 공존	사람과 활동의 상호관계 기능과 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관계 조직 구조
층위의 연속	기억과 문화의 축적 과거와 현재를 중첩하는 환경	시간 축적 구조
제도의 형평	공공성과 접근성의 조정 사회적 효과를 조정·승인하는 장치	제도 매개 구조

4. 사례 연구

4-1. 사례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RIBA 수상작에 나타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공간적 구현 양상을 분석하고, 건축 공간의 구성과 운영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형성하는 연계 체계를 해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사례분석의 대상은 RIBA Stirling Prize 수상작 가운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명시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분석 범위는 2001년 이후 수상작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이 시기부터 RIBA 심사 기준에는 조형적, 환경적 성능을 넘어 공동체 기여, 공공성, 접근성, 지역 맥락,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RIBA 공식 홈페이지, 심사 위원 코멘트와 공식 발표 자료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확인되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와 같은 범위 설정은 수상작 전반을 포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건축 공간의 구성과 운영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분석은 통합의 공존, 층위의 연속, 제도의 형평이라는 틀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 11] 사례대상지 개요

NO.	명칭	수상 년도
1	트리니티 라반 음악 무용 대학	2003
2	매기스 웨스트 런던 센터	2009
3	막시 -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	2010
4	골드스미스 스트리트	2019
5	킹스턴 대학교 타운하우스	2021

4-2. 사례 분석

4-2-1. 트리니티 라반 음악 무용 대학

런던 동남부 덤트포드 크릭 지역은 20세기 후반까지 조선·창고·경공업 시설이 밀집한 산업 수변 지역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런던 도클랜드 재생 흐름 속에서 주거 및 문화교육 시설이 도입되는 도시 재생 과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기능 전환 시기에 조성된 문화교육 시설로, 산업 지대와 주거지가 병치된 도시 맥락 속에 위치한다. 산업적 수변 맥락 위에 조성된 예술 교육 시설로서, 지역 재생 과정 속에서 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도시적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표 12] 트리니티 라반 음악 무용 대학

NO.1	트리니티 라반 음악 무용 대학	수상년도	2003
건축가	Herzog & de Meuron	위치	영국 런던



특성 요소 분석		
통합의 공존	관계적 조직성	외파·매스·스튜디오가 프로그램·동선·채광과 통합적으로 연동되며 도시 맥락과 연결
	다층적 중첩성	교육·연구·공연 기능과 자연광·도시 풍경이 동일 구조 안에서 교차
층위의 연속	개방적 수용성	반투명 더블 외피와 확산광 설계로 실내·실외 경계 완화와 도시와 개방적으로 연계
	맥락적 연속성	덤트포드 크릭의 도시 전환 맥락과 공원·보행 네트워크를 내부 구성과 연결
제도의 형평	위계적 중층성	외파·스튜디오·도시 환경이 중첩된 다층 공간 구조 형성
	기억적 축적성	빛·재료·색채 변화로 시간의 흐름과 외피 인식의 변화를 감각화
제도의 형평	균형적 공정성	확산광 중심 채광으로 신체 표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학습 환경 균형 확보
	근거적 객관성	무용 교육 요구에 기반한 스튜디오 배치·채광·음향 설계
	관계적 책임성	도시,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적 역할 가시화

종합 분석	
트리니티 라반 음악 무용 대학은 덤트포드 크릭의 도시 전환 맥락 속에서 현대 무용 교육을 수용하며 예술과 도시의 관계를 재구성한 건축이다. 프로그램 통합과 공간 개방성을 통해 문화 인프라로 기능하며, 외피와 스튜디오는 동선과 채광과 연동되어 관계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 반투명 더블 외피는 자연광과 도시 풍경을 흡수·변조하여 다층적 공간을 구성하고, 확산광 중심의 설계는 학습 환경의 균형을 확보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관계 조직과 시간성, 제도적 조율이 결합된 수행적 건축으로 해석된다.	

4-2-2. 매기스 웨스트 런던 센터

런던 차링크로스 병원 인근에 조성된 암 환자 지원 시설로, 의료 처치 중심의 병원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비임상적 치유 환경을 구현한 프로젝트이다. 병원과 인접하되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간적 장소성을 형성한다.

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과 불안·두려움·고립감과 같은 정서적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 건축은 가정적 스케일과 부드러운 감각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안정된 감각 환경과 '집과 같은' 접근 조건은 정서적 회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치유 공간의 구조를 형성한다.

[표 13] 매기스 웨스트 런던 센터

NO.2	매기스 웨스트 런던 센터	수상년도	2009
건축가	Rogers Stirk Harbour, Partners	위치	영국 런던
이미지			
특성 요소 분석			
통합의 공존	관계적 조직성	주방, 라운지 중심 수평 병치 구조로 위계 없는 공유 체계 형성	
	다층적 중첩성	공용, 개인 공간이 분절되면서도 시각·동선적으로 연계	
	개방적 수용성	가정적 스케일과 반 개방 공간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	
층위의 연속	맥락적 연속성	병원과 거리 유지를 의료와 일상 사이 중간적 장소성 형성	
	위계적 중층성	공간 깊이, 조도 변화에 따른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기억적 축적성	촉지적 재료와 확산광의 반복 경험을 통한 정서와 안정감이 축적	
제도의 형평	균형적 공정성	공용, 개인 공간의 수평 배치로 이용자 간 차별화를 최소화	
	근거적 객관성	촉지적인 재료와 확산광 전략으로 병원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환경적 조정 방식	
	관계적 책임성	공용 주방과 라운지가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 간 연대를 매개하는 사회적 장치	
종합 분석			
매기스 웨스트 런던 센터는 병원 치료 프로그램과 분리된 비임상적 지원시설로, 의료 환경과 일상 사이의 중간적 장소성을 형성한다. 주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상담실과 경원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공간 구조는 위계 없는 관계 체계를 이루며, 이용자의 자율적 공간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목재와 확산광 중심의 감각 환경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용 주방과 라운지는 자발적 교류를 유도한다. 공용과 개인 공간의 병치는 사적 보호와 공동체적 접촉을 병행하게 하여 정서적 회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치유 구조를 형성한다.			

4-2-3. 막시 -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플라미니오 지구의 옛 군사 부지에 조성된 막시는 교차중첩되는 갤러리 흐름과 곡선형 동선을 공간 조직의 원리로 적용한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연속된 콘크리트 리본 구조는 직선적 박물관 동선을 해체하고 비선형적 이동 경험을 형성한다.

벽체와 구조가 일체화된 콘크리트 시스템과 교차분기되는 내부 경로, 블랙 스틸 계단과 브리지는 수직수평 흐름을 중첩시킨다. 상부 루버형 채광과 노출 콘크리트 질감은 일관된 전시 환경을 구성하며, 완만한 곡선 매스는 도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 공간 체계를 구현한다.

[표 14] 막시 -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

NO.3	막시 -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	수상년도	2010
건축가	Zaha Hadid	위치	이탈리아 로마
이미지			
특성 요소 분석			
통합의 공존	관계적 조직성	리본 구조와 램프가 갤러리·보이드를 연결하여 전시와 이동을 통합	
	다층적 중첩성	수평·수직 갤러리가 교차중첩되어 활동이 동일 구조 안에서 교차	
	개방적 수용성	비선형 동선으로 관람 경로 선택이 가능한 개방적 공간 구성	
층위의 연속	맥락적 연속성	수평 매스와 곡률이 도시 조직과 병치되며 공존 관계 형성	
	위계적 중층성	램프 중심 연결로 공간의 깊이와 층위가 단계적으로 인지	
	기억적 축적성	반복되는 곡면과 확산광 경험이 이동 속에서 축적	
제도의 형평	균형적 공정성	특정 관람 흐름을 강제하지 않는 복수 동선 구조	
	근거적 객관성	루버형 천창과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로 전시 환경 안정 확보	
	관계적 책임성	진입 광장과 보이드가 다양한 이용 주체가 공존하는 공공적 문화 공간으로 기능	
종합 분석			
막시 - 21세기 국립현대미술관은 교차하는 콘크리트 리본과 램프를 중심으로 갤러리와 보이드가 결속된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 전시와 이동은 비선형 동선 안에서 조직되며, 수평·수직 공간은 교차 지점에서 중첩되어 활동이 공존한다. 수평적 매스와 곡률은 도시 맥락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램프를 따라 공간 층위가 단계적으로 인지된다. 확산광과 노출 콘크리트 구조는 전시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내부 보이드는 다양한 이용 주체가 공존하는 공공 공간으로 기능한다.			

4-2-4. 골드스미스 스트리트

영국 노리치 시가 추진한 105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주거 블록 사이에는 공유 녹지와 전면 현관이 거리와 직접 접하는 배치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strong sense of street'를 형성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머무를 수 있는 외부 공간 구조를 전제로 한다.

좁은 보행 중심 골목과 연속된 테라스 주거는 블록의 폐쇄성을 최소화하며, 가로-마당-주거가 이어지는 체계를 형성한다. 공유 정원은 개별 주거와 공공 영역 사이의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고, 연속적 외부 공간 구조는 주민 간 일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표 15] 골드스미스 스트리트

NO.4	골드스미스 스트리트	수상년도	2019
건축가	Mikhail Riches with Cathy Hawley	위치	영국 노리치
이미지			
특성 요소 분석			
통합의 공존	관계적 조직성	보행 골목-공유 정원-전면 앞마당이 연속 배치되어 주거 동선과 외부 공간이 상호 연결	
	다층적 중첩성	골목, 전면 정원, 공유 정원이 분절되면서도 물리적으로 이어져 이동과 체류가 중첩	
	개방적 수용성	다양한 세대와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주택 규모·출입구경계 공간을 평등하게 구성	
층위의 연속	맥락적 연속성	전통적 연속형 주거 스케일-벽돌 질감-거리 비례를 반영하여 도시 맥락과 연속성 유지	
	위계적 중층성	전면 정원, 골목, 공유 정원, 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거 환경으로 인식	
	기억적 축적성	벽돌 질감·식재·자연광 변화가 반복 경험되며 일상 속 공간 인지가 축적	
제도의 형평	균형적 공정성	남향 배치와 동일 외부 조건으로 거주자 간 주거 환경의 형평 확보	
	근거적 객관성	패시브하우스 기준 고단열·기밀 설계·열회수 환기 시스템 적용	
	관계적 책임성	보행 중심 구조와 공유 정원이 공동체 교류를 자연스럽게 유도	
종합 분석			
골드스미스 스트리트는 보행 중심 골목과 전면-공유 정원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외부 공간 체계를 통해 주거 동과 도시 공간을 통합한 공공 주거 단지이다. 분절되었던 기존 주거 환경을 재구성하여 이동과 체류가 중첩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외부 조건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었다. 전통적 연속형 주거 스케일과 벽돌 질감을 계승하면서도 남향 배치와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환경의 형평성과 에너지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건축·조경·보행 흐름이 층위적으로 결합된 공간 구조는 일상적 교류와 공동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매개하는 주거 생태계를 형성한다.			

4-2-5. 킹스턴 대학교 타운하우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학습·공연·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대학 복합 시설이다. 도서관과 무용 스튜디오, 학습 공간, 퍼포먼스 영역이 개방적으로 조직되어 기능 간 경계를 완화한다.

외곽의 깊은 콘크리트 콜로네이드는 가로와 건물을 연결하는 반외부 공간을 형성하며, 내부 외피의 유리 요소는 내부 활동을 거리와 연결한다. 중앙 아트 리움과 연속된 대형 계단은 층 간 시각적 연결을 형성하여, 건축을 도시와 연계된 공공적 학습 공간으로 확장한다.

[표 16] 킹스턴 대학교 타운하우스

NO.5	킹스턴 대학교 타운하우스	수상년도	2021
건축가	Grafton Architects	위치	영국 런던
이미지			
특성 요소 분석			
통합의 공존	관계적 조직성	아트리움, 계단 중심으로 학습과 공연 기능이 시각적으로 연동	
	다층적 중첩성	프로그램이 수평, 수직 레이어에 분산되면서 공용 공간을 통해 교차	
	개방적 수용성	대학과 지역이 동일 공간을 공유하는 개방적 이용 구조	
층위의 연속	맥락적 연속성	깊은 아케이드와 투명 입면이 가로와 연결되어 내부 활동이 외부에서 인지되는 구성	
	위계적 중층성	프로그램이 층위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공공 환경으로 인지	
	기억적 축적성	이동과 체류가 반복되며 공간 개방성과 활동 노출이 축적되는 구성	
제도의 형평	균형적 공정성	복도, 라운지, 계단이 체류를 수용하여 이용자가 동일 환경을 공유	
	근거적 객관성	노출 콘크리트와 확산광 채광이 안정적인 일관된 공간 질서를 형성	
	관계적 책임성	계단, 라운지 체류 공간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대학과 지역을 매개	
종합 분석			
킹스턴 대학교 타운하우스는 수직 아트리움과 복합 계단을 중심으로 도서관, 학습, 공연 기능이 연결된 관계 중심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수평·수직 레이어에 분산 배치되면서 공용 공간을 통해 시각적으로 교차하며, 기능 간 경계를 완화한 개방적 조직을 이룬다. 깊은 아케이드와 투명 입면은 가로와 직접 맞닿아 내부 활동을 도시와 공유하고, 건물 전체는 하나의 연속된 공공 환경으로 인지된다. 이동 기반 공간은 체류를 수용하며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노출 구조와 확산광 채광은 일관된 공간 질서를 형성하여 대학과 지역을 매개하는 공공적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RIBA Stirling Prize 수상작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현대 공공건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공간 조직의 작동 방식 속에서 구현되는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공동체 경험의 공유와 사회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제시한 삼중 미메시스(mimesis) 구조는 이러한 형성과 순환의 논리를 설명하는 해석적 틀로 작동한다.

삼중 미메시스의 단계적 구조를 건축 공간의 조직 원리와 대응시키는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즉, 미메시스 I(경험)는 공동체 경험의 형성 조건을 설명하는 단계로 이해되며, 건축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상호 접촉하고 공존하는 환경으로 전환된다.

미메시스 II(서사)는 시간 속에서 경험이 구성되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건축 공간에서는 이동과 체류의 연속적 경험 구조를 통해 문화적 기억과 경험이 축적되는 환경으로 나타난다.

미메시스 III(실천)는 해석된 경험이 사회적 행위로 확장되는 단계로 이해되며, 이는 공간의 이용 조건과 접근 구조를 통해 사회적 형평과 공공적 실천이 구현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삼중 미메시스의 구조는 건축 공간에서 각각 사회적 공존, 문화적 연속, 제도적 형평이라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으로 전환되며, 이는 다시 공간 조직의 방식인 통합의 공존, 층위의 연속, 제도의 형평으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RIBA 수상작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이러한 세 가지 공간 조직 구조를 통해 확인되었다.

첫째, 통합의 공존은 관계 조직 구조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수상작들은 기능을 단순히 분리된 프로그램으로 배열하기보다 교차와 중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건축이 프로그램의 수용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고 매개하는 장치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둘째, 층위의 연속은 시간 축적 구조의 차원에서 드러났다. 사례 건축들은 곡선 동선, 보이드, 연속적 골목, 순환 동선 등 다양한 공간 장치를 통해 이동과 체류가 연결되는 경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간 조직은 건축을 단절된 장면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환경으로 전환시키며, 기억과 경험이 축적되는 환경적 매개로 기능한다.

셋째, 제도의 형평은 제도 매개 구조의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수상작들은 이용 조건을 위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접근 경로와 체류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이용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이는 공간이 제도적 효과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조정하고 매개하는 구조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단일한 설계 요

소가 아니라 관계를 조직하는 통합 구조,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적 층위,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적 매개가 결합된 공간 조직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공건축은 형태적 완성도에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 접촉과 경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공간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대 공공건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개별 설계 요소나 프로그램적 장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직하는 공간 구조, 경험이 축적되는 시간 구조,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 구조가 결합된 공간 조직 방식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공공건축은 단순한 형태적 완성도를 넘어 사회적 접촉과 공동체 경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공간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추상적 가치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이를 삼중 미메시스의 해석 구조와 연결하여 건축 공간의 분석 틀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환경 성능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지속가능성 논의를 사회적 관계와 공공성의 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공공건축이 사회적 경험을 조직하는 공간 구조로 기능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다양한 문화권의 공공건축 사례로 확장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구조적 공통성과 지역적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건축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경험을 매개하는 공공적 환경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공공건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외재적 가치나 부가적 목표가 아니라 공간 조직 전반에 작동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관계를 조직하는 배치, 시간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는 공간 층위, 이용 조건의 형평을 조정하는 제도적 전략이 상호 결합될 때 건축은 공공적 삶을 지지하는 환경으로 성립하며, 도시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참고문헌

1. 이중우, 『건축사상과 공간』, 서울: 기문당, 2006.
2. Colantonio, A., *Social Sustainability: Linking Research to Policy and Practice*,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3. Pallasmaa, J., *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Wiley, 2005.
4.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Stirling Prize Winners 2000-2024*, London: RIBA Archive, 2024.
5. Dempsey, N., Bramley, G., Power, S., Brown, C., *The Soci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ng Urban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19(5), 2011.
6. 공영인, & 원호성, 전이공간을 활용한 사회참여 건축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1), 2022.
7. 김리영, & 문태훈, 압축도시 특성요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 *주택연구*, 18(3), 2010.
8. 김수련. 폴 리콤프의 미메시스 이론으로 본 영화적 재현방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8), 2012.
9. 김재영, & 강형주, 재생 건축에서의 전이공간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8), 2025.
10. 민경훈 & 윤재은, 사회적 건축의 로컬리티 공간 현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5(8), 2000.
11. 윤성인 & 민경훈, ESG 관점으로 본 사회참여 건축의 공간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8(7), 2023.
12. 오윤숙, RIBA 수상작에 나타난 영국 현대건축의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13. 이선미, 수요자 중심의 사회참여형 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임대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4. 이수옥, 리질리언스 관점으로 본 산업유산 문화공간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15. 양정민, 사회참여 건축에 나타난 공공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6. <https://www.architectsjournal.co.uk/buildings>
17. <https://www.ribaj.com>